

# '고품질 보리생산 위한 관리 철저'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찰보리 명품화 유지 시범사업단지 중심 보리파종 시작

올해 총 4,000ha의 보리파종을 계획하고 있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군산찰보리 명품화 유지 시범사업단지'를 중심으로 벼 수확 후 보리파종을 시작하며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는 파종기 잦은 강우로 인하여 파종면적이 대폭 줄었으나 올해에는 맑은 날이 지속되고 벼 수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계획된 파종면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고품질 보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제조제 처리 및 포장관리가

중요한데 파종 후 3일전까지 제조제를 처리해야만 제조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초기생육을 안정하게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습해에 약한 보리의 안전한 생육을 위해 배수로와 배수골을 잘 정비하여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리는 겨울을 나기 전 잎이 5~6매가 확보되어야 안전하게 생육할 수 있으며, 종자를 너무 일찍 파종하면 월동 전에 어린 이삭이 생겨 얼어 죽기 쉽고 늦게 파종할 경우 어린잎이 저온에 노출되어 생육이 늦어지고 품질이 나빠

져 수량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농가센터의 관계자들은 "군산 지역은 10월 말까지 보리를 파종해야 하지만 기상조건이 좋게 경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맥류산업 활성화 및 충분한 원료곡 확보를 위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파종한계기인 11월 10일 이전까지 파종을 마치면 된다"고 전하며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파종량을 비례적으로 늘려 파종한계기까지 최대 30%정도 늘려 파종하는 것이 수확량 확보에 유리하고 강우로 인하여 파종이 어려울

때는 우선 종자를 파종하고 추후 복토 및 배수골을 정비해야 한다"고 관련 농업인들에게 조언했다.

안창호 농가센터소장은 "올해 지리적특산물인 찰보리의 명품 유지를 위해 찰살보리 자체재종포 단지와 찰살보리 지리적특산물 단지,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 생산단지 등 3개 사업에서 15개 단지(204.6ha)를 조성하여 군산의 보리가 국내 보리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시의회 의장과 권희석 ㈜하나투어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와 하나투어 간 익산시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이 열렸다.

## 익산시 관광도시 도약 밑그림 그리다

###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와 MOU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 국내 최고의 관광사업체인 하나투어와 손을 잡았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천만송이극 화축제 기간 중인 지난달 31일 오후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시의회 의장과 권희석(주)하나투어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와 하나투어 간 익산시 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이 열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익산시는 올해 관광원년의 도시 선포와 함께 그동안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한 정책과 마케팅을 실시하고 꾸준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익산시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교통요지로 접근성이 아주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관광이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 보다 실질적이며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급변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손을 맞잡고 익산시의 관광지원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공급자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관광정책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하나투어

는 국내 최대 홍보 마케팅 플랫폼으로 익산시 관광발전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하나투어와의 MOU를 계기로 관광원년 선포에 따른 익산시의 관광정책과 마케팅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현을 익산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익산시가 서해안 벨트의 중요 관광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익산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 증대가 이뤄지고 관광 정책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 군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군산시가 오는 10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옆 특설무대에서 '제2회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산시농업인단체연합회가 주관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성산면 고살매 풍물패의 식전공연에 이어 관내 관계자들을 초청 기념식과 우수농업인 시장 표창 수여식, 농업인들의 화합을 위한 화합합곡식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안창호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서 군산 농특산물과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깝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시 시장격리곡 5819톤 매입

군산시가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곡 5,819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올해 공공비축미 5,270톤의 물량을 매입한 바 있으며 이번 시장격리곡 매입을 통해 올해 총 1만 1,088톤을 수매함으로써 지난해 동기 1만 370톤 보다 약 7% 증가했다.

이번 시장격리곡 매입은 지난 9월 25일부터 각 읍면을 순회하며 '신동진 벼'와 '새누리 벼' 2개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안창호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산시에 배정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물량이 증가해 농업인들의 희망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 교육기부 활성화 기여

군산대학교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7년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인증기간은 3년이고, 지정서 및 지정과 수여식은 오는 12월 1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한 해 동안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등을 선정해 포상하고 추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사례는 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교육기부 활성화에 활용되고 있다.

군산대학교는 중학생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지난해 4월부터 1000여명의 전북도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주도적 참여형의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실

시해왔다.

현재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미래기는 연구실 선상체험 및 해양탐구, 걸스앤지니어링 주간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 버스, 교육기부 특강, 대인정보 박람회, 학생부종합전형 모의체험 등 16개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북권 유일인 해양대학 보유 대학으로 차별화된 해양관련 프로그램을 도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내외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고교방문을 통한 재능기부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D프린팅 체험 등 창의적 활동 연계프로그램과 이공계 연구실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창의적 사고와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소통·공감 교육시책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017년을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시책마련과 직, 간접적인 교육지원을 펼치고 있다.

시는 140억원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하여 학생 건강생활을 위한 학교 급식,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뿐 아니라 교육환경개선, 학력신장, 학생복지증진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약사업인 익산혁신교육특구는 올해 7억원의 사업비중 시에서 5억원을 지원하여 4개분야에서 22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올해 2017 익산교육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해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장학사, 교육관계자 등 100인이 한자리에 모여 각 분야별 익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날 제시된 23건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시간이 필요한 10건의 중장기 사업의 경우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단계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해 소통과 공감을 통한 적극적인 교육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 익산시 '하수처리장 감량화사업' 조속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하수처리장 감량화사업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감량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처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회복과 운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익산공공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장 발생단에서부터 줄이기 위하여 농축시설 개선과 소화조의 증설 등의 감량화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탈취시설을 보강하여 악취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화가스를 이용하는

발생설비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으로 개선했다. 이 감량화사업을 통해 연간 23억 7천여만원의 운영비 절감이 예상된다.

시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감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3억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8년도 본예산에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 8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